

한화, 업무방식·시스템 대대적 혁신

한화그룹, 도전·혁신·정도 발판 삼아 ... 경영환경 변화에 무한경쟁 대응

한화그룹은 도전·혁신·정도를 새로운 핵심가치로 정하고 과거의 시스템과 업무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작업에 돌입한다.

한화그룹은 5월2일 오후 한화 인재경영원에서 김승연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가치 선포식을 열었다고 5월3일 발표했다.

1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핵심가치로 정립된 도전·혁신·정도를 임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점으로 삼아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기존 한화그룹의 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존경받는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선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임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신념”이며 “한화그룹의 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전 임직원의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 변환기의 치열한 글로벌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과거의 비즈니스와 시스템, 업무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마저도 미래형으로 혁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핵심가치 정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8대 행동원칙을 함께 제정했다.

또 핵심가치를 기업문화에 뿌리내리기 위해 그룹사별 혁신담당조직을 구성하고, 그룹 차원의 변화관리 프로그램인 Value Day를 운영하는 등 전 임직원의 교육과 실천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03>